해양수송을 위한 이산화탄소 압축공정의 최적설계

<u>이 웅</u>, 양시엽, 임영섭, 정영수, 정재흠, 한종훈* 서울대학교 (chhan@snu.ac.kr*)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이 주목을 받고 있다. CCS 기술은 크게 CO2의 포집, 수송 저장 기술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수송부분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CO2의 수송 역시 압축 액화, BOG의 재액화 공정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수송공정의 최적 설계 및 운전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CO2의 수송 공정 중에서도 압축 액화공정은 단일공정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 소모에 너지는 전체 CCS 기술의 약 1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CO2 압축 액화공정은 비싼 외부냉매와 많은 열 교환기의 사용으로대용량 CO2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CO2 일부를 냉매로 사용하는 기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운전비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열 교환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단 팽창 및 압축기의 압축비 최적화를 통하여 낮은 운전에너지로 CO2를 압축 액화할 수 있는 최적 설계 및 그 운전조건을 제시하였다.

The authors gratefully acknowledge the Energy Efficiency &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ETEP)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MKE), Republic of Korea.